

익산시, 아동 돌봄 체계 강화

아동돌봄기관 62개소, 방학 대비 돌봄 기능 강화 특별대책 추진

익산시가 겨울방학에 대비해 지역 아동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지역 아이 돌봄 기관 62개소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4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우리마을돌봄센터 6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다. 방학 동안 보호자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이 없도록 돌봄 시간차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평소 학기 중 돌봄 기관에서는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기초학습 지도는 물론 독서·숙제 지도, 급·간식 제공 등 전반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방학 중 센터별 운영시



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탄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각 기관은 방학 중 이용 아동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관 이용 홍보 △인력보강 △차량 운행 △지역 사회 연계 현장 체험프로그램 등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가정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생 되는 본인부담금을 시 자체 예산으

로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특히 방학 중 맞벌이 가정 아동을 위한 먹거리 제공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건강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다. 조리사를 통한 자체 조리나 반찬 업체 계약 등 각 기관 상황에 맞는 급식이 지원된다.

방학 중 돌봄 기관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과 공식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방학에도 언제든 맘 편히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지역에 맞는 돌봄 체계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굿바이 2023 연말이벤트’

군산 ‘배달의 명수’ 18~28일... 게임 할인쿠폰 등 진행

군산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올해 한해 배달의 명수를 사랑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굿바이 2023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굿바이 2023 연말이벤트’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사기간 ‘배달의명수’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1회 주문시 배명의 마블이라는 주사위 게임 참여 응모권 1장을 제공한다. 게임결과에 따라 총 888명에게 3,000원부터 1만원까지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지급일로부터 90일내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올해(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문 최대 이용, 최고 주문금액 및 최다 리뷰작성 총 3분야에서 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시상 이벤트’를 펼친다. 이 이벤트는 각 분야별로 1등, 2등, 3등 각 1명씩 총 고객 9명을 선정해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9월 11일부터 ‘스타트구러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이벤트는 배달의 명수 신규 입점 가맹점 200개소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꾸러미는 양치기, 고무장갑 등으로 신규 입점 사장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속있게 구성됐다.

배달의 명수 굿바이 2023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SNS(인스타, 페이스북), 고객센터(1899-8103), 군산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올 한해 배달의 명수가 각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더했기를 바란다.”며 “2024년에도 배달의 명수를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케팅과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포상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익산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4,261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과 진료비 증감률 지역 주도형 특화사업 추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시설 연계 등 전반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올해 의료 필요도가 낮은 의료수급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사업에 선정된 후 적극적으로 15가정을 발굴 연계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소, 의료기관 시설 화재사고 안전점검

군산시 보건소가 지역 의료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동절기 화재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5일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300명상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 동절기 화재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300명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따른 교육, 훈련여부, 시설 규격 준수사항, 안전관리 이행사항 등 17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3개소)을 실시한다.

앞서 지역 산후조리원에 대해 감염관리(환경위생 및 신생아 관리 등) 동절기 대비 시설안전과 가스소방 안전점검 등을 지난 13일과 14일 실시했다.

또,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정신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지도 감독을 실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나운3동, 국토부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 국·도비 등 108억원 확보... 고령자 건강·문화·복지 SOC시설 건립

군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 신청 시 도입시설 관련 지역수요조사, 설문 및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 부서 협의회를 거쳐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9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했다. 현장실사와 종합발표평가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입증해 도시재생에 대한 활발한 참여와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치니어 신활력 제작소 리본클럽(Rebam Club)’라는 주제로 나운동에 고령자 건강·

문화·복지시설을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고자 건강클럽, 청춘클럽, 재미클럽이라는 3가지 기능을 도입했다. 지하층~지상3층(연면적 2,873㎡ 규모)에 문화·교육공간, 체력인증센터, 커뮤니티 라운지 등의 공간을 배치한다. 총 사업비는 108.6억원으로, 미중물 83.4억원(국비 50억, 도비 8.3억, 시비 25.1억)에 자체 시비 25.2억원이 포함돼 있다.

군산에는 군산 종합노인복지관, 금강 노인복지관, 대안노인복지관 3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나운동

인근에는 고령자 기초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선정된 사업으로 유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은파호수공원과 연계해 나운동에 고령자 건강·문화·복지 복합형 생활SOC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이번 선정사업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군산시에 노인복지공간 확충하여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특히, 은파호수공원과 연계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공공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키움옴 행복도시’ 공무원 우수제안 선정

군산시는 지난 14일 민선8기 핵심과제 ‘키움옴 행복도시’ 추진을 위한 ‘2023년 공무원 제안 공모전’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4일간 민선8기 핵심과제(키움옴 행복도시)를 주제로 공무원 대상 제안 공모를 실시해 총 16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1차 부서평가를 통과한 10건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우수제안 5건(우수 2, 장려 3)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신생아와 부모가 아동 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가칭) ‘아기랑 엄마랑 교통카드’ 도입 및 ‘신생아용품 렌탈 서비스’를 제안한 나운동 이숙미 주무관과 핵

테크 기반 군산형 홍보시스템’을 공동 제안한 박용관관리과 백형준 주무관, 환경정책과 이해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장려상에 ‘군산시 청년 맞춤형 주거정보플랫폼 신설’을 제안한 세무과 박용열 주무관, 공원과 인도 사이의 경계 제거를 통한 개방성 제고를 제안한 시민납세과 광형근 주무관, ‘반려동물 테라피스트 건립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제안한 먹거리정책과 박소연 로컬푸드계장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소정의 시상금(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이 수여되고, 실적가점(1점) 인정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청년 취업, 대기업 현직 직원이 취업 비법 전수

익산시가 대기업과 공기업 현직 직원들을 특별 초대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다.

시는 오는 19일 청년시청에서 대기업 현직 직원들이 청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취업 준비 비법을 제공하는 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 토크콘서트는 대기업과 공기업 현직 직원들을 섭외해 청년들의 진로 설정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들에게 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크콘서트는 오후 2시부터 LG디스플레이, IC화학, HD현대인프라코어,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부터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까지 8개사가 참여한다.

현직자에게 직접 듣는 기업 소개와 직무 정보, 1:1 멘토링을 통한 생생한 입사비법 전수, 취업 상담을 제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직무 토크 콘서트 참여를 원하는 만 19~39세 청년은 오는 18일까지 익산고용안정일자리센터(063-918-6088)로 문의하거나, 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는 연말을 맞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과 청년들이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4 청년 후계농 내년 1월 말까지 모집

익산시가 지역 농촌의 미래를 이끌 2024년 청년창업 후계 농업경영인(청년 후계농)을 내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청 가능 대상은 만 18~39세(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중 독립 경영(경영주) 3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 명단은 내년 2~3월 서류와 면접 평가를 모두 거친 뒤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월 90~110만 원씩의 영농 정착 지원금이 최대 3년간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최대 5억원 한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1.5%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우대 등 우선 지원된다.

시는 다음 달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후계농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